

최연의 산 이야기 <15> 두륜산 1

삼재불입지지 두륜산이 불교 법통 지켜주었구나

<三災不入之地>



서산대사가 예언한 물(홍년), 불(역병), 바람(전란)의 세 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 두륜산과 대둔사.

중국의 곤륜산(崑崙山)에서 동북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백두산(白頭山)에 이르러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높낮이를 달리하며 맥(脈)을 이어오다가 두륜산(頭輪山)에서 험것 솟구쳤다가 해남(海南)의 땅 끝 마을 바다 속으로 숨어들었다. 곤륜산과 백두산을 거쳐 온 산줄기가 마지막 응골차게 솟았다고 백두산의 두(頭)와 곤륜산의 룬(崙)을 합하여 두륜산(頭崙山)이라 하였다. 두륜산의 연봉들이 바뀌처럼 둥글게 휘돌아 있다고 해서 '바퀴 룬(輪)'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산경표 山經表>의 산줄기 개념에 의하면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백두산에서 지리산(智異山)까지를 말하는데, 백두산의 기맥(氣脈)이 지리산까지 흘러왔다는 의미로 지리산을 달리 두륜산(頭輪山)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륜산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이 아니고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호남정맥(湖南正脈)의 끝자락에 있는 산이다. 그런데 굳이 백두산의 기운을 받았다는 의미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산이기에 그렇게 하였는 듯하다.

두륜산은 주봉인 가련봉(일명 관음봉이라고도 함)을 중심으로 고계봉, 두륜봉, 도솔봉, 연화봉, 활망봉, 향로봉 등의 아홉 봉우리가 그야말로 병풍을 두른 듯 의연하게 동서남북 사방에 솟아 있고 각 봉우리에서는 각각의 산줄기가 내려와서 한곳에서 머리를 맞대는데, 그곳이 대둔사 터이고 산줄기 사이의 물줄기들은 한줄기로 모여 장춘계곡(長春溪谷)이 된다. 장춘계곡은 산골짜기를 휘돌아가며

장춘구곡(長春九曲)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든다. 이러한 형국(形局)을 풍수학에서는 구룡농주(九龍弄珠)의 땅이라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천추혈식(千秋血食), 즉 천 년 동안 제사를 받는 현인(賢人)이 난다고 한다.

명당수가 한줄기가 되어 협곡 사이를 굽이굽이 휘돌아 나가니 이곳은 서산대사가 예언한 물(홍년), 불(역병), 바람(전란)의 세 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임에 틀림없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6년 뒤인 1604년 묘향산 원적암에서 입적하면서 자기의 의발(衣鉢)과 선조(宣祖)가 하사한 대선사 교지(大神師敎旨)를 자기가 죽는 날로 대둔사에 보내라고 유언을 남겼다.

“두륜산은 기이한 꽃들이 철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며 먹을 것이 풍족하다. 내가 보기에 두륜산은 오래오래 좋은 일이 많은 곳이다. 북쪽에는 월출산(月出山)이 있어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고(天柱), 남쪽의 달마산(達磨山)은 튼튼한 지축(地軸)이다. 동쪽의 천관산(天冠山)과 서쪽의 선은산(仙隱山)이 또 우뚝 마주 솟았다. 바다와 산들이 호위하고 골짜기가 그윽하니 만세토록 훼손되지 않을 땅이다. ... 종통(宗統)이 거기로 돌아가라.”

서산대사의 예언대로 두륜산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다. 임진왜란도 한국전쟁도 이곳을 비껴갔다. 또 서산대사의 유품을 모신 뒤 대둔사는 조선조 후기 쇠퇴한 불

교를 중흥시킨 명찰(名刹)이 되어 13종사(宗師) 13강사(講師)로 불리는 고승대덕들이 머물며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그야말로 종통(宗統)이 대둔사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유언 중에 조금 남음이 가지 않는 것은 “해남 땅은 왕화(王化)가 될만 땅이라 왕화를 위해서”라는 부분인데 억불정책을 써온 조선시대에 불교가 왕화를 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특히 법통을 상징하는 의발과 함께 ‘대선사 교지’라는 관직의 사명장을 함께 보관하라는 것은 대선사로서 함당치 않은 유연이라 생각되지만, 필경에는 서산대사가 바라는 숨은 의도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다. 늘 그렇듯이 전란이 끝나면 의병들은 본래의 상놈과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그 공로는 관군과 양반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승병도 마찬가지로 천민취급을 받는 승려로 돌아가야만 했다.

전란 후 파탄된 재정을 매우기 위해 관리들의 가렴주구는 혹심해지고 세금 또한 몇 배로 뛰여 오르니 참다못한 백성들은 민란을 일으키게 되고 승려들도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기에 이른다. 진주에서 일어난 승병들의 반란은 불교를 더욱더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법통(의발)이 모셔져 있고 임금이 하사한 정2품에 해당되는 ‘대선사 교지’가 모셔져 있으니 지방수령이 대둔사에 와서 감히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 여섯 개 군의 군수가 봄, 가을로 와서 제사를 지낼 정도의 특별 예우를 받게 되었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다시 자유를 생각하다

느릅나무 아래 서 있으니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다. 하늘하늘 그네를 타며 내려온다.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으로 ‘휘이’ 날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땅을 향해 나아간다. 풍무니에서 뽑아내는 실 한 가닥에 의지한 채, 자라난 나뭇가지를 떠나 땅으로 내리는 자의 모습이 여유롭기만 하다.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나는 벌레가 부러웠다.

크기로야 2-3cm에 불과하지만 마냥 가냘퍼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띄지도 않을 벌레다. 허여맡긴 채이어서 눈길을 확 끌지도 못했다. 눈앞에서 오가는 모습에 본능적인 경계심이 작동했다고나 할까? 아니면 막연한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는 하늘 거리며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가는 한 마리 벌레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값아먹던 잎을 벗어나 아래로 아래로 흔들흔들, 몸을 흔드는 모든 것에 자신을 맡긴 상태로 벌레는 공간을 이동하고 있었다. 몸을 일직선으로 뻗은 채 여유로운 자세로 내리는 벌레의 모습엔 자유로움과 설레임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려 있었다. 내가 갈망해온 내 모습이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거대한 벽으로만 다가오던 날들로부터 나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국가나 학교, 고용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 속 이야기를 마음대로 내뱉을 수도 없었던 시절로부터 나는 또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스스로 닫아걸 마음을 열지 못해 자신을 털어 내는 글을 쓸 수 없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단정할 수 있는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인가? 결론을 하고 싶어도 얻었으니 깊이를 알 수 없던 외로움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 것만은 분명하나 그것도 나를 송두리째 바꾸진 못했다.

인듯 보면 보이지도 않는 줄을 타고 벌레 한 마리가 땅을 향해 나아간다. 어둠이 내린 뒤에 달아도 괜찮다는 듯, 도중에 천적의 먹이가 된다는 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 흐늘 흐늘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늘의 비단줄을 타고 벌레가 내려간다.

하려고 하던 일이 생각나 나무 밑을 벗어나려 할 때까지도, 벌레는 훨훨 날기라도 하듯이 실 하나에 몸을 의지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땅에 닿으면 어디로 갈건가요?’ 묻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여 입을 열지도 않았다. 벌레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세상은 흐름 속으로 흘러간다. 다만 내가 선택한 삶이 즐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때마다 살펴보며 나아갈 일이다.

바람이 나뭇가지와 풀을 흔들며 불어와 나가지 흔들며 스쳐간다. 벌레는 바람을 타고 내 몸에서 팔딱이 물러났다 ‘휘이’ 원을 그리며 돌아왔다. 그 반동으로 다시 내게서 떨어져 원을 그리며 벌레를 바라보다가, 끝내 땅에 내려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발길을 옮겼다.

그리 급할 게 무엇이나고 내게 물으며, 좀 더 천천히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벌레의 소리가 들쭉거리에 내려앉는다. 세상이 진정 갈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바람 게 대체 무엇인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합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뱉는 발걸음만큼은 내가 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마음자락이나마 느긋하게 풀어놓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비록 미세하여 보이지 않을 지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다. 사람살이가 다 운명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진 말자. 저 작은 벌레가 누리는 크기만한 자유가 내게도 주어질지는, 여전히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유가 운명에 속한 것이라면 운명은 자유에 속한 것이다.

■유승도 (시인)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수공예 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불삼!**
02)2004-8216
농협 059-01-289082 (주)한불삼교신서